

## 하나님-사람의 생활

성경: 레 1:3, 9, 6:8-13, 요 21:15-17, 요일 3:14, 5:1, 2:6, 4:17, 갈 6:2-3, 롬 8:2

- I.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하나님-사람 생활의 실지 상태인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엡 4:21)가 실재의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 안에 복사되어,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가 되게 하는 것이다(20-24절).
- A. 사복음서는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생활의 본, 곧 하나님을 만족하시게 하고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생활의 틀을 보여 준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하는 생활을 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활 안에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의 의미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틀 안으로 넣어져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 즉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이다 — 롬 8:28-29, 엡 4:20-21.
- B.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부인함으로 신성한 생명을 사는 하나님-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 의해 온전하게 되고 있다 — 마 11:29상, 17:5하, 벰전 2:21.
1. 그리스도는 사복음서에 계시된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사실 때, 하나의 본을 세우셨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통하여 그분께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본을 따라 그분께 배우는 것이다 — 고전 15:45하, 골 3:4.
  2.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이며 또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활이다. 우리는 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며, 이 실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다 — 고전 1:30, 고후 5:17, 12:2상, 골 1:27, 갈 2:20, 롬 8:10.
- C.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자동적으로 우리는 복음서들에 묘사된 틀, 모습, 본에 따라 그분을 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틀의 형상으로 형태 지어지고 이 틀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말의 의미이다 — 마 11:29, 롬 8:29.
- D. 우리가 연합된 영 안에 살 때, 우리는 실재의 영에 의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에 따라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틀이신 그분에게서 배움으로 그분의 전기(傳記)가 우리의 역사(歷史)가 되게 한다. 새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은 복음서들에 계시된 예수님의 생활과 정확히 똑같아야 한다 — 갈 6:17-18, 롬 1:1, 9, 엡 4:20-24, 빌 2:5, 마 11:29, 벰전 2:21.
- E.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신 목적은 그분께서 신성한 생명에 의해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분을 먹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그분과 정확히 똑같은 우주적이며 위대한 한 사람, 곧 신성한 생명에 의해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는 한 사람이 된다 — 애 3:22-24, 55-56, 계 2:4, 7, 요 6:57, 63, 롬 15:16, 엡 6:17-18, 시 119:15.

II.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생활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생활을 반복하는 생활이다. 이러한 생활은 번제물로서 여러 체험을 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생활이다 — 레 1:9, 요 8:29, 고후 5:9.

- A. 번제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생활을 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번제물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레 1:3, 민 28:2-3, 요 5:30, 6:38, 8:29, 히 10:5-10.
- B. ‘번제물’로 번역된 단어는 ‘위로 올라가는 어떤 것’을 뜻한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레 1:3, 10, 14). 땅에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생활인데,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인 생활을 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요 6:38).
- C. 번제물은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였다(레 1:9). ‘만족시키는 향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안식의 향기’ 혹은 ‘만족의 향기’를 의미한다. 만족시키는 향기는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주는 향기이다. 만족시키는 이러한 향기는 하나님께 누림이 된다.
- D. 합당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께 안수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며 그분과 하나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그분은 이 땅에서 사신 생활 곧 번제물의 생활을 우리 안에서 반복하신다 — 레 1:4, 고전 6:17, 갈 2:20.
- E. 이러한 연결, 곧 이러한 동일시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약함과 결함과 흠을 가져가신다 — 고후 5:21, 갈 2:20상.
- F.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태우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 지속적인 번제물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태울 수 있고, 또 감소되어 재가 됨으로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 — 시 20:3, 레 1:16, 6:8-13, 고전 3:12상, 계 3:12, 21:2, 10-11, 18-21.
  - 1. 재는 감소되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우리는 감소되어 재가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감소되어 재가 된다. 즉 감소되어 아무것도 아닌 것, 무(無)가 된다 — 막 9:12, 사 53:3, 고전 1:28, 고후 12:11.
  - 2. 우리가 죽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더 동일시될수록 자신이 한 줌의 재가 되었다는 것을 더욱 더 깨달을 것이다. 우리는 재가 될 때 더 이상 타고난 사람이 아니다. 그보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종결되고 불태워진 사람이다 — 갈 2:20상.
- G. 재를 제단 동쪽 옆, 해가 뜨는 곳에 둔 것은 부활을 암시한다 — 레 1:16, 요 11:25, 빌 3:10-11, 고후 1:9.
  - 1.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재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넘겨지신 것을 의미하나, 동쪽은 부활을 상징한다 — 막 9:31.
  - 2.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소되어 재가 될수록 더욱더 동쪽에 두어질 것이고, 그 동쪽에 있을 때 우리는 해가 떠오르고 부활의 일출을 체험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 빌 3:10-11.
- H. 결국 재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 계 3:12, 21:2, 10-11.
  - 1.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종결하고 감소시켜 재가 되게 하며, 부활 안에서 재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귀한 재료가 된다 — 고전 3:9하, 12상.
  - 2. 감소되어 재가 될 때,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일 안으로 이끌려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한 귀한 재료들이 된다 — 롬 12:1-2, 고후 3:18, 계 21:18-21.

III. 번제물의 실재이신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약 사역을 수행하실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요 5:19),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셨으며(4:34, 17:4),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셨고(14:10, 24), 자신의 뜻으로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으며(5:30),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다(7:18). 그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셨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으셨다(사 42:4, 50:4-5, 53:2상, 비교 요 4:13-14, 6:15, 막 9:7-8).

A. 주님의 생활은 주님의 일과 움직임과 사역이었다. 그분의 일은 그분의 생활이었고, 그분의 움직임은 그분의 존재였다. 그분께는 그분의 생활과 일과 움직임과 사역이 차이가 없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사셨다 — 비교 눅 22:26-27, 요 10:10하, 고전 15:45하, 요일 5:16상, 고후 3:6, 빌 1:25.

B. 주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하나이셨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셨으며, 어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셨다.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은 이러한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그 어떤 일에서도 아무런 입지나 희망이나 기회나 가능성도) 가질 수 없었다 — 요 10:30, 8:29, 14:30하, 16:32-33, 벤전 2:23.

1. 그분은 육체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계신 비밀스러운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분은 기도하시기 위해 종종 산으로 가지거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물러가셨다 — 마 14:23, 막 1:35, 눅 5:16, 6:12, 9:28.

2. 그분은 결코 홀로 계시지 않았는데, 이는 아버지께서 그분과 함께하셨기 때문이다. 매 순간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의 얼굴을 주목하셨다 — 요 5:19, 16:32, 시 16:7-8.

C. 하나님-구주이신 그리스도는 사마리아의 부도덕한 여인을 구원하기 원하셨을 때, 유대로부터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여행하셔야 했지만, 사마리아의 큰길에서 우회하여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고, 수가에서 가까운 야곱의 우물에서 자신이 만나셔야 할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구하심으로써 그녀를 보살피시어 생명수 곧 흐르는 삼일 하나님 자신으로 그녀를 보양하시려는 것이었다 — 요 4:3-14.

D. 비난하던 바리새인들 중 누구도 간음한 여인을 유죄판결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구주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녀에게 “나도 그대를 유죄판결 하지 않으니”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녀를 보살피셨는데, 이것은 위대한 ‘나는 -이다’이신 그분께서 그녀를 보양하시어 죄에서 해방시켜 그녀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 요 8:3-11, 24, 34-36.

IV. 우리가 하나님 자신인 사랑 안에 거할 때,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요일 4:17) — 번제물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사셨고,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사랑의 생활을 하여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요일 3:14, 5:1, 2:6).

A.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은 사랑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이다(롬 8:2, 갈 6:2-3). 사랑의 법은 우리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도록 생명의 영의 법으로 말미암아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으로 가득하다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없을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여 자신을 속이기 때문이다(갈 6:3).

- B.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게 될 때, 우리는 자동적이고도 자연스럽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목양하고 찾는 영을 가진 목자들이 될 것이다 — 요 21:15-17, 눅 15:3-7.
- C.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게 될 때,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수고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행 20:35)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는’(살전 5:14) 사랑의 수고가 된다(고전 15:58, 살전 1:3). ‘연약한 사람들’은 영이나 혼이나 몸이 연약하든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롬 14:1, 15:1).
- D.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목양하시고, 그에게 그분의 어린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라는 위임을 주셨다. 이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하여 하나님의 양 떼인 교회를 돌보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돌보는 것은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으로 귀결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할 것이다 — 요 21:15-17.